

다시 민주주의 촛불을 밝힐 때

4월에서 5월로, 용산에서 전국으로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먹고 살기는 어려운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일자리는 자꾸 없어지는데 이런 마당에 비정규직 기한 연장이나 하려고 하고 최저임금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제 병원도 영리병원이 들어서서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높다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던 대학생들은 무더기 연행되었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쫓아내기 하려는 일제고사에 반대하였다는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하고 있습니다. 공정언론 사수를 주장하던 YTN과 MBC의 기자와 피디들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앵커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1%의 부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에 이어서 양도소득세도 깎아주고 다시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민을 희생시켜서 소수의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매우 과감

하게 추진하는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서민 희생, 부자는 더 부자 되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 2개월,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흥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을 불구덩이에 집어 넣어 태워죽이고도 한 마디 사과도 없는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오히려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쫓겨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을 했던 망루에서 죽어 내려온 철거민들을 불법테러집단이라고 매도하고, 고인들의 영정조차 짓밟아 깨버렸습니다. 살인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추모대회를 매년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진압하기에 급급하고, 전철연과 용산범대위를 탄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추모집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을 문제 삼아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을 색출한다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벌써 3백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용산 학살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원천봉

쇄하고, 언론사 기자와 피디마저 연행 구속하는 검찰과 경찰은 그러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다는 '조선일보 방사장, 스포츠조선 방사장' 수사에는 신중을 기한다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2개월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모두 죽이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를지 모릅니다.

모이자, 4월 29일

4월 29일은 용산 학살이 발생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5월 2일은 촛불 항쟁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용산범대위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를 범국민추모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용산참사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 언론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 일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모든 노동자들, 비싼 대학 등록금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국민들, 살 집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서민들,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모든 시민들은 4월

말 5월초 집중투쟁 기간에 모두 함께 합니다. 4월을 넘어 5월로, 용산을 넘어 전국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쯤 촛불은 계속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 새벽이 올 때까지.

용산참사 100일(29일) 범국민 추모 행동제안

-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리본을 답시다.
- 꽃을 들고, 참사현장 분향소 참배에 동참합시다.
- 오전 11시부터, 100인 농성단에 결합하여, 추모행사에 함께합시다.
- 낮 12시, 1분 동안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합시다.
- 오후 6시에는 규탄의 차량 경적을 울리고, 교회와 사찰에서 추모의 타종을 울립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용산참사 100일 범국민 추모제

100일 추모제 : 4월 29일(수), 7시 / 시청광장
5.2 범국민대회 : 5월 2일(토), 5시 / 서울역광장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범국민 추모주간입니다. mbout.jinb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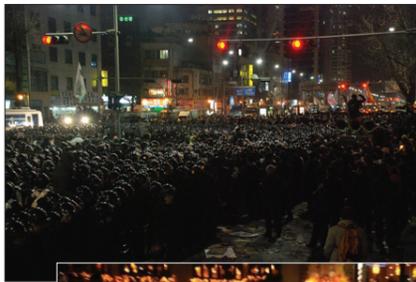
용산참사 그리고 투쟁의 기록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당시 상황. 김석기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취임 직전 경찰은 철거민 투쟁에 대해 유례없는 강경진압 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이 사망, 특공대경찰관 1명 사망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 참사 발생 일인 1월 20일 용산범대위가 구성되었고, 그날 저녁 분노한 시민들이 용산에 모여서 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명박 정부는 초지일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경찰은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 탄압을 자행하였다.



▲ 용산범대위는 1월 23일 서울역에서 범국민추모대회를 열고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김석기, 원세훈 등 책임자 처벌! 뉴타운, 재개발 중단! 이명박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내걸고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 검찰은 예정된 각본대로 경찰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범대위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는 무산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자진 사퇴를 내세워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 지금도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 1층에는 현장분향소가 차려져 있고 매일 촛불 추모대회는 지속되고 있다.



▲ 그러나 참사에 대한 정부와 구청, 개발조합, 용역업체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용산 4구역 재개발은 다시 강행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용역강패의 비호 아래 철거는 진행 중이다.

◀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는 날이 갈수록 간악해지고 있지만 용산 4구역 철거위 회원들과 용산 살인진압을 규탄하는 추모와 저항의 물결은 지속되고 물러섬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살인개발과 민중학살을 멈추기 위해 흔들림 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가자.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아무도 사과조차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억울하고 어디 제대로 호소할 곳도 없어 답답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돌아가신 저희 유가족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시겠습니까? 비록 저희 아버님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잘못된 개발정책에 맞서 싸우시다 돌아가셨지만 이 일이 저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디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종민 (故 양희성 열사 차남)

“고인이 72세라는 나이에 살겠다고 아들과 망루에 오른 것도 모자라 이젠 테러리스트라는 오명까지 덮어쓰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곳까지 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그 또한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현실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지 진실이 숨겨지거나 감추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진실이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열사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 규명의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 때까지 저는 지칠 수도 없습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정영신 (故 이상림 열사 며느리)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섯 가족 모두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정부는 꿈쩍도 안 하고 사람들이 지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남편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기로 마음 맞는 사람들과 결정해서 한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진상이 밝혀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못 하는 일이고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숙자 (故 한대성 열사 부인)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게 괴롭기만 합니다. 이제 이런 괴로운 일들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세상이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0일입니다. 100일이 되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윤상필 (故 윤용헌 열사 차남)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눈물도 안타까운 마음도 경찰과 정부에 대한 분노도 전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경찰은 전철연 식구들과 범대위 식구들을 잡아가두려고만 하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방패로, 버스로 막아서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세 달이 넘도록 함께 싸우고 힘이 되어준 모든 분들이 오늘까지 우리 유가족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분의 목숨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 이런 참혹한 죽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권명숙 (故 이성수 열사 부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유가족들의 공개서신

철거 전까지 우리 집과 가게는 가족들의 웃음과 희망이 자라던 곳이었습니다. 세간 살이 하나 들여놓거나, 가족들이 함께 맘 흘러 가게를 차렸던 날 너무나 기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은 단지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재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주잔에 하루벌이의 시름을 잊고 단칸방에서 살 부대끼면서도 단란하게 살던 우리 가정이 단 하루밤 새 송두리째 뿌리 뽑혔습니다. 누구처럼 많은 것을 탐하던 것도 아니고, 단지 내 삶의 터전 지키려던 것이, 더 이상 발붙일 땅 한 뼨 없어 하늘로 쫓겨 올라간 것이 그만 마지막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들딸을 둔 아버지시니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아이들이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을 석 달 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5일 동안 엄마 잘

챙기고 있으라는 말을 남긴 아버지가 그렇게 먼 길을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서 처음 본 주검이 아버지의 불에 탄 시신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고맙게도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 어른스러웠습니다. 힘든 마음들을 감추며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고 께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대견스럽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그 나이에 누려야 할 것들을 꼭꼭 누른 채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역장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합니까. 용산 4구역에서 벌어지는 용역 강제의 패악질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을 볼 때마다 '과연 이곳이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라고 몇 번이나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철거민들에게는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도, 진실을 밝혀주는 언론도,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정부도 없을까요.

그래서 망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자 대통령이 처음 내뱉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고요? 그대로 되물겠습니다. 이 땅에 과연 법과 원칙이 존재하기라도 했던 것입니까? 밥 위에 군림하는 법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 22일 청와대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유가족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불의라고 들었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일 뿐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사건 뒷으러며 이메일 보내라고 지시를 하다니요.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고인들을 추모하는 국민들을 불법으로 매도하다니요. 가진 것 없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의 목소리가 닿기에 청와대 답장이 너무 높은 것인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진실을 왜 대통령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면 100일입니다. 편히 눈감지 못한 영령들이 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무고한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지만, 어찌하여 대통령은 한 마디 사과도 대책도 내 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슴에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던 옛 임금들의 선행을 바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남편들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라도

싶습니다. 대통령은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면 국민도 대통령을 저버립니다. 민심은 천심, 곧 하늘의 이치입니다. 오늘 청와대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유가족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 당장 진심으로 사죄하고 저희들의 요구를 수용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 유가족들은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고 이상림의 처 전재숙
고 윤용현의 처 유영숙
고 이성수의 처 권명숙
고 한대성의 처 신숙자
고 양희성의 처 김영덕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것인가 불도저 MB 정권에 맞서 총력 투쟁할 때다

일부 보수언론이나 우익집단 외에 대부분의 국민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혀를 차고 있다. 소통 없는 정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 주민 80%가 쫓겨나는데도 뉴타운 개발을 확대하는 정부, 경제를 살리겠다고더니 부자만 살리는 정부,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비정규직, 인턴제가 확산되기도 기업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정부, 살인진압으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명이 죽었는데도 불법시위 때문이라고 왜곡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최근 MB정권은 경제위기를 타개한다며 초임 삭감을 대대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초임을 비롯 임금까지 삭감한다면 결국 죽어 나가는 것은 국민이요, 이득 보는 것은 소수의 가진 자들 뿐이다.

더욱이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MB정권은 명예퇴진과 희망퇴진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계약해지, 재계약거부 혹은 무급휴업으로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 이도 모자라 비정규직법을 재계약하여 비정규직 노예계약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보장한다더니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MB정권은 추가경정예산으로 28조 9천억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세입결손'분이 무려 1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그 이유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과 실업 증가를 핏지만 부자감세 때문에 세입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해놓고 슈퍼추경을 하니, 결국 이를 국민의 혈세로 메꾸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MB정권,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MB정권의 실체가 용산 참사를 통해 고스란히 확인되었다.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것인가? 불도저 MB 정권에 맞서 총력 투쟁할 때다.

용산 참사 '감춰진 진실' 있다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진실이 묻히는 게 가장 무섭다. 서울 용산에서 참혹하게 죽은 철거민의 유족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말이다.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신문들은 유족들의 말을 시들방귀로 여긴다. 그들에게는 드러날 진실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니다. 용산 참사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진실이 묻혀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용산 철거민들의 농성에 경찰특공대가 전격 투입될 때, 경찰종합학교 교장이던 박종환. 그는 참사 직후 치안정감으로 퇴임했다. 그는 퇴임식에서 경찰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인권보호'임을 강조해서 몇몇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참사당시 경찰종합학교장 박종환의 증언

하지만 그때는 용산 참사를 정확하게 꼬집지 않았다. 퇴임 직후 가진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진압작전이 성공했다"는 지적에 그쳤다. 말을 아낀 셈이다.

그가 최근 봉은사(주지 명진 스님)가 발간하는 월간 <판전>과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정용일 기자가 용산 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 묻자 그는 "한마디로 실패한 작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진압의 목적과 방법, 대상이 예측 가능하도록, 최소 침해의 원칙 등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농성장소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소진되기를 기다리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진압에 들어가는" 무모한 작전을 비판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상규에 어긋나는 진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외부 압력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작전

여기서 곤장 의문이 일어난다. 참사 발생 당시 경찰종합학교 교장이던 그가 단언하는 '외부의 압력'은 누구일까? 그의 인터뷰를 짚어보

면 그것이 '경찰 외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몸으로 막는 것은 경찰인데 '판단'은 다른 곳에서 한다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앞서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한다면 당연히 주무 부처는 경찰청이 돼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한 다양하고 쓰라린 실패 경험을 쌓은 경찰에게 판단을 맡기면 잘할 텐데 회의는 경찰청 밖 타 기관에서 열리고, 판단도 타 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랬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경찰종합학교 그의 전임자는 다름아닌 김석기였다. 경찰 핵심직에 있던 박종환이 용산 참사에 대해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작전'이라고 확인하는 데는 근거가 있지 않았는가?

용산 참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김석기를 두남두었다. 수사 결과도 '숨진 철거민 탓'으로 귀결되었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수사에서 외압의 실체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논의조차 안돼

용산 참사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장자연 리스트, 청와대 행정관의 성상납,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콤비임비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 묻히고 있다. 물론, 장자연 리스트도, 박연차 리스트도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다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생존권을 위해 농성에 나선 국민 5명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참혹하게 숨졌는데도,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의 존경을 받던 박종환 전 경찰종합학교 교장의 '외압 증언'은 경찰에게도 '살인 경찰'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다. 참사를 부른 경찰특공대의 무모한 투입, 그것을 지시한 외압의 실체는 과연 누구일까. 용산 참사 특검이 절실한 이유다.

함께합시다!

- 매일 저녁 7시 용산참사현장의 추모미사와 촛불추모제에 함께합니다.
 - 매주 토요일 용산현장 및 서울도심에서 있는 범국민추모대회에 함께합니다.
 - 유족돕기와 부상자 병원비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합니다.
- 국민은행 295401-01-156716 (이중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용산참사 현장 농성에 결합합시다!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는 참사 해결을 위해 정부에게, 대통령 사과와 특검제, 특별법 도입, 재개발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언반구 사과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따라서 22일 비상시국회의 이후, 용산 범대위는 유가족과 대표단 현장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을 위한 천막설치도 물리력으로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부상을 입고 실신하고 참가자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유가족들과 대표단은 용산참사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산참사 현장 농성에 결합해 주십시오. 농성결의를 통해, 참사 발생 100일째인 4월 29일 추모제부터 촛불1주년인 5월 2일까지 모든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에 맞서, 국민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 4월 22일 문정현 신부님이 노래로 농성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

여기 사람의 있다

삶이 보이는 창 간행

"우리를 다스리는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있었다면 애당초 개발로 인해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집을 잃고 일터를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꽃겨나고 밀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돈을 위한 집이 아니라 삶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그건 꿈같은 얘기라 쳐도, 망루에 오른 사람들을 향해 진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설득을 했을 것이다. 그걸 농치 끝내 풀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참회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인간들"은 그날 국가 폭력에 죽어간 이들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본문 「조세희 작가에게 듣다」 중에서

참사 두달 보름, 끝나지 않은 용산 철거민 학살의 진실은?
실기 위해 올라간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무자비한 공권력 진압 과정에서 죽어갔다. 정부는 하루도 안돼 유가족들을 떠돌리고 강제 부검을 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다. 다섯 유가족들은 지금도 훼손된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진실을 없애기 위해 신 보도지침, 모든 용산 관련 추모제를 불허하고 범국민대책위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묻혀지지 않는다. 이 책 안엔 그런 숨겨진 진실이 용산참사 당사자들과 서울, 경기 지역 철거민 열 다섯 명의 증언을 통해 담겨져 있다.

개발에 저항한 '난장이'들의 삶, 일상, 투쟁을 받아 적다
이 책은 350만 원짜리 무허가 판잣집을 궁전이라 여겼고, 12평 전셋집에서 네 식구의 행복을 가꾸었던, 자신의 가게에 태일 한 장 한 장을 붙여가며 꿈을 일궈왔던 우리 가난하고 평범한 이웃들의 작은 소망에 관한 보고서이다. 폭력적인 재개발에 대항하여 이들이 망루에까지 오르게 되는 고단한 투쟁의 기록이며, 그 저항이 무참히 짓밟히는 과정을 담은 우리 시대 잔혹한 개발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주문 방법
- 개인 구입은 서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단체 주문은 범국민대책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 책을 받고 판매 후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 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액 추도기금으로 쓰입니다.
* 입금 계좌 및 담당자 / 302-0005-1159-01(농협중앙회 / 김택진)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02-795-1444 / mbout.jinbo.net / mbout@jinbo.net
[출판사] 삶이 보이는 창 / 02-848-3097 / samchang.or.kr